

C군의 B급 잡설, 영단어 어원탐구 Chapter - 16

글.

조인준 KBS 기술연구소 차장

어딘가에서 문득 “9월 21일 밤을 기억하나요?”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Earth, Wind & Fire’의 ‘September’가 흘러나오면, “9월인데 왜 저 노래 안 나오나 했네, 이제 슬슬 가을인가?”라는 혼잣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 정도로 ‘September’가 우리나라에서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 9월송(song) 중의 하나가 되어버린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계절감이 선명한 노래 ‘September’와 달리 9월의 날씨는 뭔가 어중간한 느낌입니다. 이른 아침의 서늘함은 뭔가 그윽한 가을 냄새를 풍기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오후가 되면 여전히 뒤틀을 부리는 더위 때문에 아침에 조성된 이유 없이 그냥 아파하고 싶은 가을 감성이 허망하게 사그라들어버립니다. 일관성이 부족한 날씨 탓에 기분도 제멋대로인 시절에는 그냥 생각을 비우고 뭐라도 하는게 나은거라 여기며 영단어 어원풀이에 전념하겠습니다.

Merge

어원 : 라틴어 *mergere*
(to sink, to dip)

“A와 B를 머지(Merge)하고...” 자료를 만들거나 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두 개 이상의 내용들을 합치거나, 어떤 내용을 다른 내용에 녹아들게 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합치다’, ‘융합하다’ 등의 의미로 흔히 쓰는 영단어 Merge의 어원은 라틴어로 ‘가라앉다’, ‘잠기다’(to sink) 또는 ‘담그다’(dip)라는 뜻의 ‘mergere’입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에 잠기거나 가라앉는 것이 두 개가 서로 합쳐지거나 융합하는 이미지와 통하는 면이 있죠?

Submerge

어원 : 라틴어 *sub-(under) +*
mergere(to sink, to dip)

Submerge는 자동사로는 ‘(액체 등)에 잠기다’, 타동사로는 ‘~을 (액체 등)에 잠그다’, ‘~을 감추다’ 정도의 의미를 갖는 영단어입니다. 어원은 라틴어로 ‘밑’(under)을 뜻하는 접두사 ‘sub-’와 ‘가라앉다’, ‘잠기다’(to sink)라는 뜻의 ‘mergere’입니다. 어원의 의미를 직역해도 밑으로 잠기거나 가라앉는 것이 되어서 현재 영어에서 갖는 무언가에 잠기는 의

미와 매우 유사합니다. 조금 은유적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 Submerge가 갖는 뜻 중의 하나인 '~을 감추다' 정도인데, 뒀가를 수면 밑으로 가라앉히는 것으로부터 '감추다'의 이미지가 쉽게 떠오르므로 어원과 현대의 뜻과의 상관관계를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Immerse

어원 : 라틴어 im-(in) +
mergere(to sink, to dip)

Immerse는 '~을 담그다', '~에 열중케하다' 정도의 뜻을 가진 동사이며 어원은 라틴어로 '안(in)을 뜻하는 접두사 'im-'과 '가라앉다', '잠기다'(to sink)라는 뜻의 'mergere'입니다. 어원을 풀어보자면, 무언가를 액체 같은 것의 '안쪽'으로 잠기게 하는 것 정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을 담그다'라는 현대의 의미가 자명하게 연결이 되며, 조금만 은유적으로 해석을 하면 '~에 열중케 하다'는 의미와도 무리 없이 연결이 됩니다.

Immersion

어원 : 라틴어 im-(in) +
mergere(to sink, to dip)

Immersion은 '〈액체 등에〉담금', '몰입' 정도의 의미를 가진 영어 명사입니다. 어원은 앞서 설명한 영어 동사 Immerse와 동일하며 Immerse의 명사형 정도로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Immerse와 설명이 중첩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따로 언급을 하게 된 이유는 간단히 추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입니다. 최근 몇 년간 유행하고 있는 360°VR을 이야기할 때 'immersive video'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말로 '몰입 영상', '실감 영상'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몰입'하니까 '실감'이 느껴지겠죠? 그런데 immersive를 영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컴퓨터나 영상기기에서〉사용자의 주변을 둘러싼 듯한'이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깊게 생각 안 해도 생긴지 오래된 단어 같지는 않습니다. C군의 추측이지만, 'immersive'는 4D 극장이나 360°VR 기술들이 태동하면서 Immersion이나 Immerse를 형용사 느낌이 나도록 변형한 것이 immersive가 아닌가 싶습니다.

Emerge

어원 : 라틴어 ex-(out) +
mergere(to sink, to dip)

Emerge는 '나타나다', '출현하다' 정도의 의미를 갖는 영단어이며, 어원은 라틴어로 '밖(out)을 의미하는 접두사 'ex-'와 '가라앉다', '잠기다'(to sink)라는 뜻의 'mergere'입니다. Emerge에서는 라틴어 접두사 'ex-'가 발음이나 기타 이유로 'ex-' 대신 'e-'로 변화했습니다. 어원을 직역해보면 '밖으로 가라앉는다'라고 이상하게 해석이 됩니다. 무언가 억지로 의미를 부여해주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무언가 그럴싸한 의역이 필요하죠? 일단 라틴어 어원 'mergere'를 '잠기다'라고 100% 동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잠겨있는 상태 정도의 형용사적인 해석을 하고, 여기에 '밖(out)을 의미하는 접두사 'ex-'의 의미를 추가하면 '잠겨있는 상태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이미지가 형성이 됩니다. 잠겨서 보이지 않다가 밖으로 나오므로 '나타나다', '출현하다'라는 현대의 의미와 다소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Immerge

어원 : 라틴어 im-(in) +
mergere(to sink, to dip)

Immerge는 ‘뛰어들다’, ‘가라앉다’ 등의 의미를 가진 영어동사입니다. 어원은 라틴어로 ‘안’(in)을 뜻하는 접두사 ‘im-’과 ‘가라앉다’, ‘잠기다’(to sink)라는 뜻의 ‘mergere’입니다. 어원을 보니 앞에서 설명한 영어동사 Immerse와 동일하고 뜻도 일부분 유사합니다. 그럼 Immerge와 Immerse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Immerge는 자동사이고, Immerse는 타동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Immerge나 Immerse를 사용하실 때, 전자는 자동사이고 후자는 타동사라는 점에 유의해서 사용하시면 유익하겠죠?

Intersect

어원 : 라틴어 inter-(between) +
secare(to cut)

Intersect는 ‘~을 가로지르다’, ‘~와 교차하다’ 정도의 의미를 갖는 영어 동사입니다. 어원은 ‘사이’(between)의 뜻을 갖는 라틴어 접두사 ‘inter-’와 ‘자르다’(to cut)라는 뜻의 ‘secare’입니다. 뜻은 ‘무언가의 사이를 자르는 것’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Intersect의 의미인 ‘~을 가로지르다’, ‘~와 교차하다’와 매우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을 가로지르다’, ‘~와 교차하다’의 이미지에선 가로지르는 대상이나 교차하는 대상의 연속성을 끊고 지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로부터 ‘무언가의 사이를 자르는’ 의미가 어렵지 않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Bisect

어원 : 라틴어 bi-(two) +
secare(to cut)

Bisect는 ‘~을 양분하다’, ‘~을 2등분 하다’라는 의미의 영어동사입니다. 어원은 라틴어로 ‘둘’(two)을 뜻하는 ‘bi-’와 ‘자르다’(to cut)라는 뜻의 ‘secare’입니다. 어원의 뜻인 ‘두 개로 자르는 것’과 동일하게 Bisect의 의미도 ‘~을 양분하다’, ‘~을 2등분 하다’가 됩니다.

Trisect

어원 : 라틴어 tri-(three) +
secare(to cut)

Trisect는 ‘~을 3등분 하다’라는 의미의 영어동사입니다. 어원은 라틴어로 ‘셋’(three)을 뜻하는 ‘tri-’와 ‘자르다’(to cut)라는 뜻의 ‘secare’입니다. 어원의 뜻인 ‘세 개로 자르는 것’과 동일하게 Trisect의 의미도 ‘~을 3등분 하다’가 됩니다. ‘2등분 하다’라는 뜻의 Bisect, ‘3등분 하다’라는 뜻의 Trisect까지 있으니 ‘4등분 하다’라는 뜻의 영어단어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라틴어로 4를 뜻하는 접두사 ‘quadri-’가 붙은 Quadrisection가 ‘4등분 하다’라는 뜻의 영단어로 현대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5등분 하다’라는 뜻의 영단어는 있을까요? C군이 영어사전을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5등분 하다’라는 뜻의 단어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 서양인들도 한 개, 두 개, 세 개, 좀 더 인심 쓰면 네 개 정도까지만 각각의 단어로 표현하고 이를 넘어가면 아마도 그냥 ‘많다’로 인식하거나 표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Insect

어원 : 라틴어 in-(into) +
secare(to cut)

Insect는 누구나 아는 ‘곤충’이라는 의미의 영어 명사입니다. 어원은 라틴어로 ‘~안으로’, ‘~을 향해’(into) 정도의 의미를 갖는 접두사 ‘in-’과 ‘자르다’(to cut)라는 뜻의 ‘secare’입니다. 아마도 곤충의 몸통이 머리, 가슴, 배 등의 마디를 가지고 있고, 다리에도 마디가 많아서 마디마디의 잘록한 모양이 ‘머리, 가슴, 배, 다리 등의 마디로(마디로 ~ 마디를 향해 :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의미로) 잘린 것’과 같은 연상을 일으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Insect의 어원 풀이에 관해서는 명확한 자료를 찾지 못한 탓에 C군의 추측이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은 C군이 찾지 못한 주류의 의견과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해주시가 바랍니다.

Resect

어원 : 라틴어 re-(intensive prefix) +
secare(to cut)

Resect는 ‘(체내의 조직 등)을 절제하다’ 정도의 의미를 갖는 영어 동사입니다. 어원은 라틴어로 강조 접두사로도 쓰이는 ‘re-’와 ‘자르다’(to cut)라는 뜻의 ‘secare’입니다. Resect의 뜻을 보아하니 의학 미드 보면 나올 법한 단어죠? 맞습니다. 가끔 의학 미드나 법의학 관련 장면이 나오는 수사물 미드를 보다보면 Resect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독자분들 중에 미드 팬들이 계시다면, 병원이나 부검 장면이 나올 때 귀 기울여 보세요. Resect라는 단어가 여러분 귀에 ‘쑅~’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달의 영단어 어원풀이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아직은 알쏭달쏭한 날씨의 9월 건강하게 보내시고, 대망의 추석 연휴가 맞이하고 있는 10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P.S. C군의 잡설은 귀동냥에 근거하여 재구성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주세요. 📖